

고흥, 현 군수에 4명 도전장...담양, 민주당이나 혁신당이나

고흥군수

공영민, 현직 프리미엄 업고 재선 도전
지방의원·행정관료 출신들 도전 리시
민주당 독주 속 공천이 곧 당선 분석도



공영민



김학영



류제동



신순식



박준희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흥군수 선거전이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일찌감치 재선을 공식화한 공영민(71) 현 군수의 독주 속에 지방의원, 행정관료 출신 인사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다자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모양새다.

공영민 현 군수는 '합천 도약 희망찬 고흥'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재선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공 군수는 민선8기 당선 이후 고흥~봉래간 국도 15선 4차선 확장, 고흥군 3대 미래 전략 산업 추진,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 각종 숙원사업을 잇따라 해결하며 행정력을 인정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2025년 정부합동평가' (2024년 평가)에서 전남 22개 시·군 중 종합 1위를 차지했고, 한국매니페스트 실천본부에서 2년 연속 공약이행,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는 등 정책 완성도가 강점으로 꼽힌다.

현장중심 지방의회 활동을 펼쳐온 류제동(58) 현 고흥군의 회 의장도 고흥군수 선거에 출마표를 던지고 물밑 작업에 한창이다.

재선 국회의원 류 의장은 8년간의 의정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현장의 이야기를 청취하며 군민 삶과 애로 사항을 가장 먼저 체감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선출직=책임'이라는 신념으로 주민과 약속을 지키는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보폭을 넓히고 있다.

김학영(72) 전 고흥 경찰서장은 입법·행정고시 동시합격으

로 국회와 전남도청, 청와대, 경찰청 재직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추진력과 중앙예산 확보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박준희(59) 전 고흥군 기획실장은 명예퇴직 후 선거전에 돌입, 표심을 다지고 있다. 지방고시 출신인 박실장은 고흥읍장, 도양읍장, 우주항공 사업소장 등 28년간 고흥군 주요 핵심부서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그는 현장형 리더십과 군민참여 행정을 이룰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신순식(66) 전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도 출마가 예상된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무조정실 경제 행정조정관, 전남체인청장, 부산체인청장등을 역임한 신 전 실장은 중앙정부와의 인적 네트워크와 풍부한 행정경험을 통한 리더십과 예산 확보에 강점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선거는 공영민 현 군수의 현직 '프리미엄'에 맞서 지역 정치인과 관료 출신들의 도전 양상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치열한 내부 경선이 예상된다.

경쟁력 있는 조국혁신당, 무소속 후보자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민주당 공천 결과가 본 선거 결과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담양군수

정철원, 전국 유일 혁신당 단체장 재선 총력
민주당 후보들 재보궐 패배 명예회복 나서
민주 탈당 후보 선거 판도 변수 분석도



정철원



김정오



박종원



이규현



이재중



최화삼

내년에 치러지는 담양군수 선거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혈전이 예상된다.

담양군은 조국혁신당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단체장을 배출한 지역으로, 실지회복을 노리는 민주당과 리턴매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 소속의 현 군수의 현직 프리미엄에 맞서, 치열한 당내 경선을 뚫고 본선에 오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간 접전 양상이 유력하다.

현직인 정철원(62) 군수는 재선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군수직을 쟁취한 정 군수는 탄탄한 조직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정 군수는 금성면 출신으로 3선(7~9대) 군의원을 지냈다. 무소속으로 두 차례나 군의원 선거에 당선될 정도로 지역 내 단단한 지지기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군수는 임기 시작 후부터 마을 곳곳을 찾아가는 소통 행보를 보이는 등 사실상 재선을 염두에 둔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4명의 입지자가 담양군수 출마를 계획 중이다. 당장 담양을 지역구로 둔 현직 전남도의원 두 명 모두 출마가 점쳐진다.

재선의 박종원(57) 전남도의원(담양 1선거구)은 5, 7대 담양군의원을 거치는 등 오랜 풀뿌리 정치생활로 지역 사정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규현(66) 전남도의원(담양 2선거구)도 초선 도원이지만 세 차례 담양군의원(3·7·8대)을 지낸 토박이 정치인이다.

군의원 3선 경력의 김정오(64) 전 담양군의회 의장도 물밑 표심잡기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4월 치러진 담양군수 재보궐선거에서 정 군수에 석패한 이재중 전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후보도 내년도 지방선거 출마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춘추관 행정관 등을 지내는 등 중앙정치와의 인적 네트워크가 강점으로, 지난 재보궐선거 패배 후유증 극복이 관건으로 꼽힌다.

최화삼(71) 전 담양 새마을금고 이사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이사장은 앞서 담양군수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탈당을 선언, 정철원 군수를 지지하면서 선거 판도를 흔들었던 바 있다.

조국혁신당이 전국 유일의 단체장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중앙당 차원의 전폭적인 도움 유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맞선 더불어민주당이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화삼 전 이사장의 행보도 선거 판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민석 기자 mskim@/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전남도, 산업기계 분야 베트남·필리핀 공략 성과

시장 개척단 파견...760만 달러 수출 협약

전남도가 베트남과 필리핀에 시장 개척단을 파견, 760만 달러 규모의 산업기계 분야 수출 성과를 거뒀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광주전남지원본부와 공동으로 '2025년 산업기계 특화 베트남·필리핀 시장개척단'을 파견했다.

시장개척단 파견은 지역 산업기계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기반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는 수출 준비상황과 제품 경쟁력, 바이어 발굴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산업기계 분야 7개 기업과 소비재 분야 1개 기업 등 총 8개 기업을 선정했다. 전남도는 시장개척단 파견 한달 전부터 현지 바이어와 최소 2회 이상 사전 매칭을 진행해 수출 가능성을 높였다. 전남 산업기계는 현지 바이어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내며 총 91건, 56억 달러 규모의 상담을 진행하고, 760만 달러 상당의 수출 업무협약(MOU)을 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상담회에서 가축분뇨 처리장치와 가드레일, 도로교통시설물 업체가 현지 바이어와 수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필리핀 마닐라 상담회에서도 유기질 비료, 신축 이음관, 계면활성제, 수배전반, 이차전지 양극재 등 다양한 도내 기업이 상담을 진행하며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베트남은 탈(脫)중국 흐름과 제조·인프라 투자 확대,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기존에 산업기계 분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된다. 필리핀도 디지털, 에너지 산업 수요 증가와 우리나라와 FTA 발효 이후 한국산 산업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는 베트남과 필리핀을 중장기 전략시장으로 지정하고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시장개척단 성과를 바탕으로 전남 산업기계 기업이 해외 인프라·에너지 시장을 선점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 취업멘토링 페스타

내일 시청서 특강·설명회

광주시가 청년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고 취업 역량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돕는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5 취업멘토링 페스타'를 5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연다.

행사와 함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광주청년센터 등 13개 기관이 '광주청년 일자리통(통) 업무협약'을 맺고 청년 일자리 정보를 한 번에 안내하는 통합서비스 체계를 가동한다.

행사는 협약식과 특강, 토크 등으로 구성된다. '광주청년 일자리통 협약식'으로 시작해 취업 인플루언서 제이콥이 '꿈을 비즈니스처럼 설계하고 실행하는 법'을 주제로 현실적인 취업 준비와 자기계발 전략을 소개한다. 1대1 상담존에서는 광주지역 경제교육센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회, 광주일자리종합센터 전문가가 재무·주거·취업을 주제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정병호 기자 jusbh@

지방정가 라운지

서대현, 여수섬박람회 정부 책임 지원 촉구

전남도의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가 세계 최초 '섬'을 주제로 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정부의 실질 지원을 촉구했다.

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서대현(민주·여수2) 전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정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이 원안의결됐다.

건의안에는 여수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연안 크루즈 운항, 2026세계어촌대회 여수 개최, AAM(미래항공교통) 특별시연 등 총 51억원 규모의 4대 핵심사업을 정부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담았다.

'2026년 섬 방문의 해' 지정, 중앙지방협력회의 여수 개최, 부정기 국제선 운항 허가, UN '섬의 날' 지정 추진 등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요구했다.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여수세계섬박람회는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양 르네상스의 출발점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시험대"라며 "정부가 말하는 지방시대가 허상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실행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와 여수시가 수년간 준비해온 노력이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빛바래서는 안 된다"며 "지역이 먼저 움직였으니 이제 중앙정부가 화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